



KS M 7704 『보존용지』

제정 해설

생물환경과 화공주사 정 두 식
02)509-7253 dsjeong@ats.go.kr

1. 제정배경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수백년이 지나도 쉽게 변색되거나 훼손되지 않는 전통한지(漢紙)에 문화, 정보 및 역사와 관련된 귀중한 자료 등을 기록하여 오랫동안 훼손없이 보존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무환경의 자동화로 기록매체가 다양화됨에 따라 종이에 기록한 자료의 중요성을 간과한 나머지 대부분 보존기간이 50년 정도인 일반 사무용 종이를 사용하여 자료를 기록·보존함으로써 종이 기록물의 변색 또는 훼손이 심각한 상황인데, 현재 전국 199개 공공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약 10,000여종의 종이 기록물 중 20% 정도가 변색 또는 훼손되어 연간 약 300억원의 복구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중요문서 등 기록보존용으로 사용하는 종이에 대해 200년 이상 변색되거나 훼손되지 않는 제품을 권장하기 위해 한국산업규격(KS)을 제정하고 품질인증도 함께 실시하

게된 것이다.

2. 규격내용 및 인증

이번에 제정한 KS규격은 우리원이 2000년부터 기록보존용 종이에 대한 품질기준 및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로서, 종이의 변색을 방지하기위해 일반 사무용 종이(pH 5 정도)와 달리 종이의 pH기준을 중성 또는 알칼리성(7.5이상)이 되도록 하였고 훼손의 판정근거인 내절(內切)강도(하중 4.9N)를 기존 사무용 종이보다 2배이상 높이는 등 품질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실시하는 품질인증제도(보존용품 품질인증마크)는 선진 각국과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영구보존마크,∞)에서 시행하는 품질인증의 장점을 수용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정비한 것으로, 우리나라 종이의 품질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KS 제 개정 해설

- 선진 각국의 인증마크 : 미국(AQ마크), 유럽(AF마크), 호주(Permanence Quality마크)

3. 기대 효과

이번에 기록보존용 종이에 대한 품질기준

제정에 따라 귀중한 역사자료의 보존 연한을 연장시킴으로써 그동안 낭비되어 왔던 국가예산의 절감은 물론, 종이 기록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34

